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장 진 아[†] 신 희 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은 부부갈등이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 미칠 것으로 가정한 모델(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이다. 경쟁모델은 세 가지 매개변인들이 병렬적으로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모델(개별 매개모델)이다. 이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49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내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 경로를 분석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델로 설정한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이 경쟁모델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의 주요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은 자기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부모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은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시사되므로, 부부갈등에 노출된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상담에서 자아탄력성에 중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갈등, 내현화, 외현화,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 : 장진아, 아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E-mail : dongpu@hanmail.net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05년 한 해만도 128,468쌍의 부부가 이혼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352쌍이 이혼한 셈이다(통계청, 2006). 이혼은 이미 개인적인 불행이나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 가정의 자녀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부가 전체의 63.3%에 이른다.

일찍이 이혼이 보편화되어 왔던 서구에서는 지난 20~30년간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적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Amato와 Keith (1991)는 이혼가족 자녀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의 자녀를 비교한 92개의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족의 자녀보다 학업성취, 심리적 적응, 행동문제, 자존감, 사회적 유능감, 정신건강 면에서 모두 좋지 않음이 밝혀졌다. 또한 10년 후 1990년대에 발표된 67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혼가족 자녀와 양부모 가족 자녀간의 차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mato, 2001).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보듯이 이혼은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심리적, 기능적, 적응적 문제들을 남긴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 또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Emery, 1982; Larson & Gillman, 1999). Grych, Raynor 그리고 Fosco(2004) 등은 가족 구조의 변화(부모의 부재)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같은 변수들

보다는 이혼한 부모 사이의 관계, 부모-자녀 갈등, 부모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 과정(family process)이 이혼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Amato(2001)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은 부모의 부재나 경제적 결핍 같은 요인이 아닌, 바로 가족간의 갈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가족의 해체 그 자체 보다는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부부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Davies, Sturge-Apple, Winter, Cummings & Farrell, 2006; Grych, 2005; Krishnakumar, Buehler & Barber, 2003; Turner & Kopicc, 2006).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이러한 연구 경향의 변화는 부부갈등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체략들이 포함된다(Strauss, 1979; 이민식, 오경자, 2000에서 재인용).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 능력을 배우게 되는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여러모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Grych

& Fincham, 1993).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Buehler 등, 1997; Buehler 등, 1998; Gerad & Buehler, 1999; Krishnakumar, Buehler & Barber, 2003),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Ingoldsby, Shaw, Owens & Winslow, 1999; Kerig, 1996). 또한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부 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며(Emery & O'Leary, 1984), 또래간의 갈등 및 갈등해결 책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Johnson, LaVoie & Mahoney, 2000; Ballif-Spanvill, Clayton, Hendrix & Hunsaker, 2004), 의사소통 방식(Herzog & Cooney, 2002)과 친구들과의 우정의 질(Kitzmann & Cohen, 200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부 갈등은 학업성취도(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Unger, McLeod, Brown & Tressell, 2000)와 신체건강(El-Sheikh, Harger & Whitson, 2001)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들의 다양한 기능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여러 가지 기능적 손상 영역 중에서 국내 연구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은 자녀의 내현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것이다(김윤희, 황순택, 2003; 이민식, 오경자, 2000).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 심리적 기능 및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로, 부부갈등이 자녀의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와 우울, 불안,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현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으로 인한 자녀의 부적응을 내현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부부갈등과 자녀 부적응의 매개과정

앞서 살펴본 대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결과는, 자녀가 부부갈등에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권영옥, 이정덕, 1999; 양희정, 1999; Cummings, Zahn-Waxier & Radke-Yarrow, 1981; Wierson, Forehand & McCombs, 1988),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이다(양희정, 1999; Cummings, et al., 1981; McClosky, Figueredo & Koss, 1995). 그렇다면 부부갈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부부갈등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자녀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도울 때 무엇에 상담개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규명될 필요가 있는 질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었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현명호, 2002; Gerard, Buehler, Franck & Anderson, 2005; Gonzales, Pitts, Hill & Roosa, 2000; 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Grych, Harold & Miles, 2003; Kerig, 1998; Marcus, Lindahl & Malik, 2001; Unger, Brown, Tressell & McLeod,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매개역할 할 것으로 추론되는 많은 변인들 중에서, 특히 내적 외적인 '자원(asset)'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정기간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겪게 되는 부모간의 불화와 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역경을 극복하는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Sells, 1998). 이러한 취약성은 자녀들이 지닌 내적 외적인 자원들이 부부갈등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결핍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갈등이 자녀들이 지닌 어떤 자원을 훼손시키는지 발견하는 것은 자녀들이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해지는 이유를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지닌 자원에 초점을 두고 매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부부갈등이라는 위험요인이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거나 보상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과 잠재능력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들 자원에 대한 발견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부부갈등에 노출된 상황에 처한 자녀들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충분한 자원이 대상자에게 주어지면 부부갈등과 같은 역경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Masten,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녀들이 지닌 내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부부갈등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외적 자원으로서의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닌 ‘자원(asset)’을 중심으로 매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녀의 자원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절능력으로 개인이 지닌 내적자원에 해당하는 자아탄력성,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정환경 자원인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 혹은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외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이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자아를 과소통제하거나 과다통제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면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낮은 상황에 직면할 때 전략에 집중하는 것을 강화하는 행동 레퍼토리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세상에서 더 쉽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자아 과다통제 하는 개인은 범주적인 사고와 구획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적응에 빠질 수 있다(Block, 2004). 부부갈등은 자녀의 환경에 따른 대처자원과 조절능력을 훼손시켜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부적응의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유성경, 홍세희, 그리고 최보운(2004)은 가정의 위험요소와 아동의 부적응 간의 관계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부부갈등은 가정의 위험요소에 포함되므로 부부갈등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부부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결혼 생활에서 부모

의 적대적인 갈등관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Grych & Fincham, 1993). 예컨대, 지속적으로 갈등이 심한 부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고 결국,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어지고 자녀의 요구를 귀찮게 여겨 결과적으로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녀에 대한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는 자녀의 수동성, 불복종, 자존감 저하, 자기-통제의 결여, 사회적 유능성의 감소 등과 높은 상관이 있다(현명호, 2002에서 재인용). 요컨대, 부부관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손상시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의 발달과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부모 양육태도가 부부갈등으로 인한 자녀의 부적응을 매개하는 과정을 보인 Fincham(1998)의 연구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부모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민식과 오경자(2000)의 연구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며,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으며 의사전달과 상호의무의 조직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Cobb, 1976).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주변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애정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우울을 감소시키고(Asarmov & Horton, 1990), 약물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Hughes, Power & Francis, 1992), 또한 비행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1993). 이러한 결과들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지지가 결핍될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알콜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rgan, Chang & Pettit, 1994; Rosenbaum, 1989). 국내 연구에서도 김관희와 이경희(1997)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양돈규와 성옥련(1998)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지각된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적었다. 매개과정에 관한 Baron과 Kenny(1986)의 조건에 따라, 지각된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다는 양돈규와 성옥련(1998)의 연구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Asarmov와 Horton(1990) 등의 연구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중심역할: 개별 매개모델 vs. 자아탄력성 매개모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으로 인

해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자녀의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매개변인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어떤 연관된 방식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부부갈등에 따른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돕기 위한 개입을 할 때, 이러한 매개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상담자들이 어디에 개입의 초점을 둘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들을 통합하고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기반한 한 가지 가설로는 세 개의 매개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개별 매개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내외적 자원에 해당하는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각기 독립적으로 부부갈등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경쟁할 ‘자아탄력성 모델’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이 연결된다는 가설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개변인들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통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안현지(1999)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이 대체로 높은 지연 행동 경향을 보인다는 이수연(1984)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미현(2002)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초등 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통제 및 제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낙관성이 높고 활력성, 대인관계 역시 높게 나타났다. 국외 연구로는 워싱턴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Richters와 Martinez(199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아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n, 2001).

다음으로 매개변인들 중,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가족과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Markstrom, 2000), 사회적 지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기술과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icitra-Kleckler & Waas, 1993). 또한 국내 연구로는 구자은(2002)의 연구에서 담임선생님과 어머니, 친한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각각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매개변인들 간에 자아탄력성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할 때, 세 가지 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매개하는지(개별 매개모델: 경쟁모델), 아니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아탄력성이 중심 역할을 하는지(자아탄력성 매개모델: 연구모델),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을 구성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설문조사는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학년 640명(남학생 387명, 여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돌아가 시거나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지 않는 학생 49명(7.7%),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 96명(15%)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사례는 남학생 296명(59.8%), 여학생 199명(40.2%)으로 총 49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부부 갈등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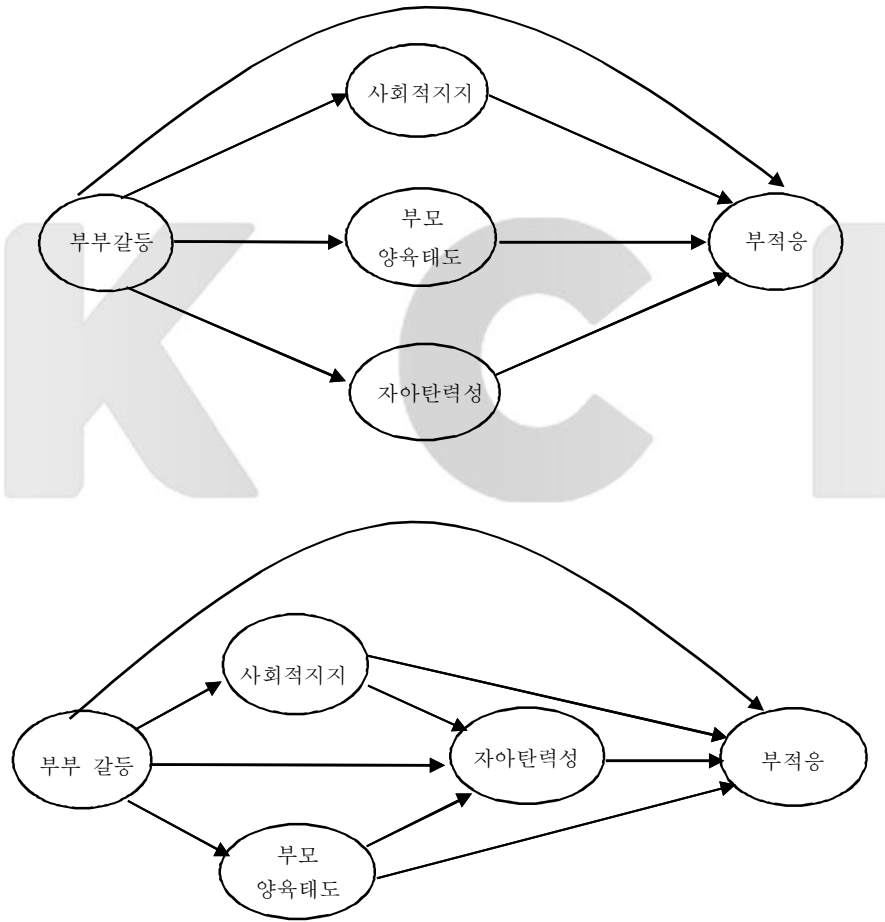


그림 1. 개별매개모형(위)과 자아탄력성매개모형(아래)

갈등 아동 지각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 중 갈등성질 요인을 나타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과 관련된 1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역코딩을 한 결과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 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 ER 89)를 유성경(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박은희(1996)는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요인분석해서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69이다.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65)의 Child'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와 Robert, Block 그리고 Block(1984)의 Child's Rearing Practices Report를 토대로 하여 Lempers(1989)가 구성한 29개 문항을 기초로 하여 김보형(1999)이 우리문화에 맞지 않거나 내용적으로 다소 중복된 18개 문항을 삭제하고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코딩했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김보형(1999)의 연구에서의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 애정적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는 .82, 애정적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o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 박지원(199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를 참고하여, 이경주(1997)에 의해 수정·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경주(1997)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두 척도로 나누었다. 지지원은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15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지지유형은 정서적지지, 자존감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측면으로 나누었고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역코딩을 한 결과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경주(1997)의 연구에서 지지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 지지유형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지지원의 신뢰도 계수는 .82, 지지유형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행동

청소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적응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Report(YSR)를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가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 증후군 척도의 전체 문항은 119개 문항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 내현화 행동문제(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와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성, 비행)와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적응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불안(남: .84, 여: .85), 위축(남: .71, 여: .72), 신체증상(남: .72, 여: .76), 공격성(남: .85, 여: .84), 비행(남: .66, 여: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의 신뢰도 계수는 .83, 위축은 .52, 신체증상은 .74, 공격성은 .80, 비행은 .56이다.

결 과

구조모델 검증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 (198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델이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는 우선 수용할만한 측정모델인지를 확인한 후에 구조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MOS 5.0 program을 사용하여 측정모델과 이론모델을 검증하였다.

측정모델 검증

구조모델을 검증하기 이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

다. 특정모델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 적합도 지수로는, 카이제곱 값 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Nonnormed fit index(N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적합도 지수 중에서, χ^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χ^2 차이값도 역시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0, 2001; Hong et. al., 2003, 재인용),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NNFI)를 중심으로 모델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NNFI,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 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측정모델 검증 결과,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4, N=495)=790.672$, NFI=.829, NNFI=.821, CFI=.863, RMSEA=.079).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하여 관찰변인과 잠재 변인간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λ)을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관찰변인 항목들이 잠재변인에 대한 적절한 요인부하량($\lambda > .30$)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구조모델 검증

부부갈등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

표 1.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측정 변인	Un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Z	Standardized factor loading
탄력성				
대인관계	1.00			.53 ¹⁾
활력성	.78	.10	8.26	.54**
감정통제	.63	.08	7.69	.48**
호기심	1.36	.20	6.98	.42**
낙관성	.67	.09	7.44	.46**
부모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1.00			.89
거부·비일관적 양육태도	.91	.10	19.94	.85**
사회적 지지				
또래지지	1.00			.69
가족지지	.99	.09	11.34	.56**
교사지지	.39	.07	5.95	.29**
정서적 지지	1.67	.15	15.51	.78**
정보적 지지	.78	.70	14.89	.75**
자존감 지지	1.25	.11	15.80	.80**
물질적 지지	.77	.07	14.94	.75**
부부갈등				
갈등빈도	1.00			.88
갈등강도	.99	.04	22.97	.87**
갈등해결	.84	.04	20.45	.79**
내현화				
우울/불안	1.00			.90
위축	.50	.04	14.69	.71**
신체증상	.41	.09	12.29	.58**
외현화				
공격성	1.00			.84
비행	.32	.08	7.08	.57**

표 2. 구조모델의 적합도 (개별 매개모델과 자아탄력성 매개모델)

모 델	$\chi^2(\phi)$	df	AGFI	NFI	NNFI	CFI	RMSEA
1. 개별 매개모델(경쟁모델)							
내현화	795.611	163	.822	.796	.801	.830	.089
외현화	812.323	145	.806	.781	.777	.811	.097
2.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연구모델)							
내현화	611.427	161	.859	.981	.982	.986	.075
외현화	642.797	143	.846	.826	.871	.858	.084

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매개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모델(개별 매개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부부갈등이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모델(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이다. 이 두 모델을 통해서 매개변인들이 부부갈등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매개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델을 검증하였다. 단, 경로를 단순화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부적응 행동을 내현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별로 모델을 각기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부적응 행동 유형(내현화 혹은 외현화)에 따라 각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Harold, Fincham, Osborne 그리고 Conger(1997)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대로 경쟁모델인 개별 매개 모델(내현화)은 $\chi^2(163, N=495)=795.611$, AGFI=.822, NFI=.796, NNFI=.801, CFI=.830, RMSEA

=.089이므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 개별 매개 모델(외현화)에서는 $\chi^2(145, N=495)=812.323$, AGFI=.806, NFI=.781, NNFI=.777, CFI=.811, RMSEA=.097이므로 역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모델인 자아탄력성 매개모델(내현화)은 $\chi^2(161, N=495)=611.427$, AGFI=.859, NFI=.981, NNFI=.982, CFI=.986, RMSEA=.075이므로 적절한 적합도를 지닌 모델이며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외현화)에서는 $\chi^2(143, N=495)=642.797$, AGFI=.846, NFI=.826, NNFI=.871, CFI=.858, RMSEA=.084이므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모델 간의 적합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자아탄력성 매개모델(모델2)-개별 매개모델(모델1)은 내현화에서는 $\chi^2_{diff_1}=184.164$, 외현화에서는 $\chi^2_{diff_1}=169.526$ 이므로 χ^2 임계역은 .05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 매개 모델이 더 좋은 모델로 채택되었다.

한편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의 경로를 살펴보면, 두 가지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화, 외현화 모두에서 부부갈등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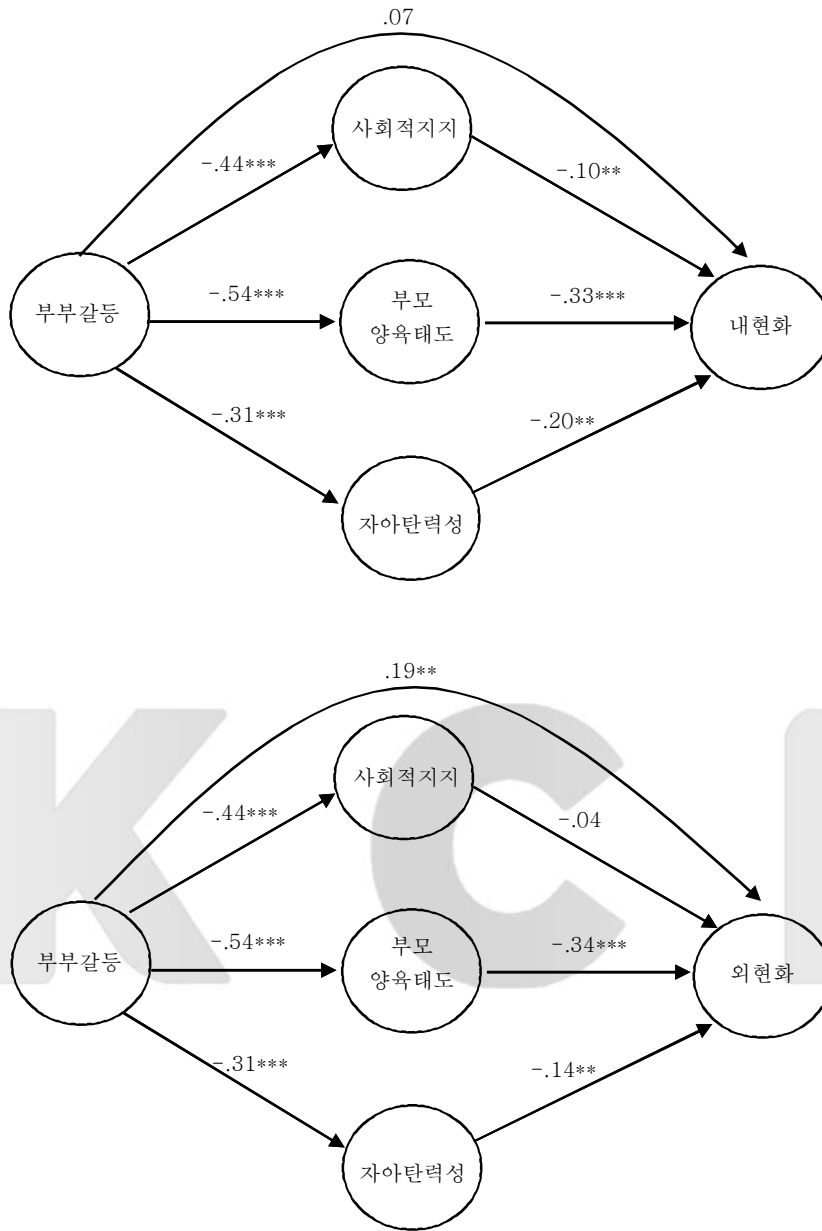


그림 2. 개별 매개모델(경쟁모델) 분석 결과

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0으로 제약을 가하여 이들 경로를 제외했을 때 모델의 적합도가 더 나빠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정모델과의 비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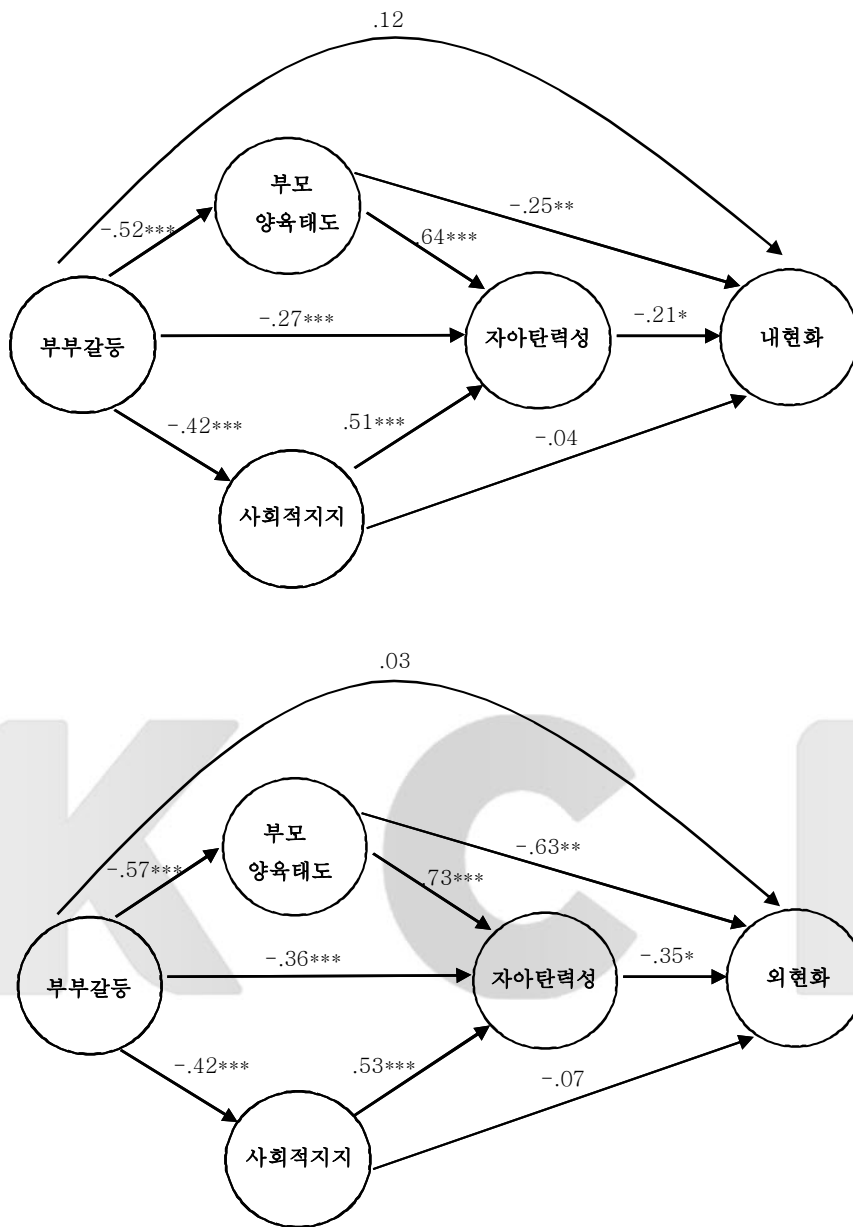


그림 3.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연구모델)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되었다.

외현화·내현화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두 경로를 삭제하고 모델을 수정하여 모델 적합도

를 다시 살펴본 결과 내현화에서 수정된 모델은 $\chi^2(163, N=495)=613.863$, AGFI=.860, NFI=.981, NNFI=.982, CFI=.986, RMSEA=.075로

표 3. 연구모델의 적합도 (연구모델과 수정모델)

모 델	$\chi^2(\phi)$	df	AGFI	NFI	NNFI	CFI	RMSEA
1. 연구 모델 (내현화)	611.427	161	.859	.981	.982	.986	.075
(외현화)	642.797	143	.846	.826	.871	.858	.084
2. 수정 모델 (내현화)	613.863	163	.860	.981	.982	.986	.075
(외현화)	644.510	144	.847	.826	.833	.858	.084

나타났으며, 외현화에서는 $\chi^2(144, N=495) = 644.510$, AGFI=.847, NFI=.826, NNFI=.833, CFI=.858, RMSEA=.084로 나타났다. 두 모델의 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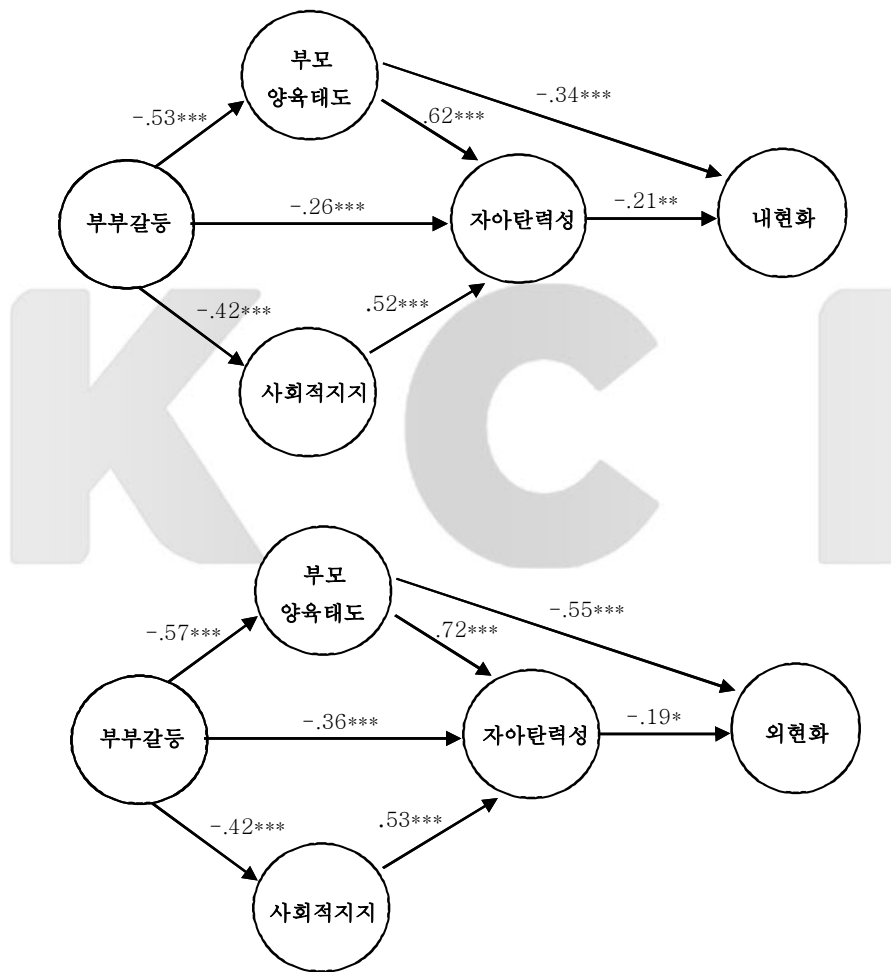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채택모델: 자아탄력성 매개모델

않아 χ^2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매개 수정모델(모델 2) - 자아탄력성 매개 연구모델(모델 1)은 내현화에서는 $\chi^2 \text{diff}_{2,1}=2.236$, 외현화에서는 $\chi^2 \text{diff}_{2,1}=1.713$ 이므로 χ^2 임계역은 .05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모델 적합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모델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채택된 수정모델과 각 경로계수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부부갈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이 지닌 내적 외적인 자원(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매개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자원에 해당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개인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해서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들이 각각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모델(개별 매개모델)과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적인 자원이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델(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중학생 495명(남학생 296명, 여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사이를 매개한다고 가정한 자아탄력성 매개모델과 매개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한 개별 매개모델 둘 다 모델 적합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간의 비교를 위해 개별 매개모델과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매개모델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들이 모두 같은 수준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자원인 두 변인이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 사이의 매개변인들이 다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 모델에서 주요 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내현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enkins & Smith, 1990; Grych, Seid & Fincham, 1992; 이영미, 2004)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현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문자와 전연진(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모델링, 가족 정서 분위기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아탄력

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부부갈등과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모델의 경로계수에서 부부갈등이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다는 양돈규와 성옥련(1998) 연구, 부부갈등은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미(2004) 연구, 그리고 부부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문자와 전연진(2002)의 연구 결과와 각각 일치한다.

넷째, 자녀의 부적응 행동과 부모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연구 모델 검증에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모델이 최종 모델로 채택되었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잘 적응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하여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정미현, 2002; 이은미, 박인전, 2002; Richters & Martinez, 1993)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더 잘 적응한다는 Block(2004) 연구를 통해서 추론했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의 자아탄력성 매개역할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녀의 부적응 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연구 모델 검증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경유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적응 행동 수준이 낮다는 선행 연구가 있지만(Asarmov & Horton, 1990; Hughes, Power & Francis, 1992; Lee, 1993; 김관희, 이경희, 1997),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의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 친한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구자은(2000)의 연구와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설거나 위협한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낸 Block(2004)의 연구를 통해서 추론했던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의 자아탄력성 매개역할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개인이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되지만 만약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자아탄력성이 낮아져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 간에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설적인 연구모

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원이 있을 때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려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모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학령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관계 범위가 넓고 관계 대상이 다양한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대체로 가족, 또래, 교사로 한정된다(한미현, 1996). 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주요 사회적 관계이지만 가족 관계나 또래 관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를 것이다(정운주, 2004).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지지원 중에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부적응 행동과 상관성이 매우 높지만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지지는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청소년은 생활여건상 부부갈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갈등특성이나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실제 부부갈등의 양상과는 다르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응답의 성실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

부갈등에 대한 자녀 보고와 더불어 부모의 직접적인 평가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 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에서도 청소년 당사자 외에 담임교사와 부모에 의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녀들이 지각한 부부갈등(평균: 55.87, 표준편차: 11.83)은 전형적인 부부갈등 상황에 놓인 자녀들이 지각한 심각한 부부갈등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보다 심각한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갈등은 초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Belsky & Rovine, 1990; Anderson, Russel & Shumm, 1983)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에 속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의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련성 및 상대적 설명량은 남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분석을 생략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각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해봄으로써 남·녀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 개입을 찾을 수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매개변인이 있는데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들 간의 관련성

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아보았고 그 결과, 매개변인들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심 매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들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실재에 대해 큰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로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다는 결과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 모델은 학교·상담 장면에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 부모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영향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상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부부갈등 자녀 상담에 있어서, 개인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 구자은 (2002).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김관희, 이경희 (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2), 145-165.
- 김명숙 (1996).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11(1), 61-75.
- 김보형 (1999). 경제불황 상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지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 성옥련 (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 양희정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실시요강.

-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협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 연구*, 18(1), 393-408.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 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천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정문자, 전연진 (2002).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 정미현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주 (2004).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11), 1-15.
- 주소희 (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 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 12호*, 180-210.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명호 (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5집*, 64-94.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Amato, L.,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d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derson, S. A., Russel, C. S., & Shumm, W. R. (1983). Re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Asarmov, J. R., & Horton, A. A. (1990). Coping and stress in families of child psychiatric

- inpatients: Parents of children with depressive and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45-157.
- Ballif, Spanvill., B, Clayton, C. J. Hendrix, S. B., & Hunsaker, M.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Violent and Peaceful Behavior in Peer Conflicts Among Children Who Have and Have Not Witnessed Interparental Violence. *Journal of Emotional Abuse*, 4(2), 101-12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 Ri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lock, J. (2004). The Stroop effect: its relation to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3), 735-746.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ehler, C., Anthony, C., Krishnakumar, A., Stone, G., Gerard, J., & Pemberton. (1997).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 colon;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2), 233-247.
- Buehler, C., Krishnakumar, A., Stone, G., Anthony, C., Pemberton, S., & Gera.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119-13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1.
- Davies, P. T., Sturge-Apple, M. L., Winter, M. A., Cummings, E. M., & Farrell, D. (2006). Child adaptational development in contex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7(1), 218-233.
- Do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l-Sheikh, M., Harger, J., & Whitson, S. M. (2001).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d Physical 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Vagal Tone. *Child Development*. 72(6), 1617-1636.
- Emery, R. E. (1982).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 Psychology*, 12, 411-420.
- Fincham, F. D. (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2), 543-574.
- Gerard, J. M., & Buehler, C. (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43-361.
- Gerard, J. M., Buehler, C., Franck, K., & Anderson, O. (2005). In the Eyes of the Beholder: Cognitive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Division of Family Psychology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Division 43)*, 19(3), 376-384.
- Gonzales, N. A., Pitts, S. C., Hill, N. E., & Roosa, M. W. (2000).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in a Multiethnic, Low-Income Sample. *Journal of the Division of Family Psychology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Division 43)*, 14(3), 365-379.
- Grych, J. H.(2005). Interparental conflict as a risk factor for child maladjustment. *Family Court Review*, 43(1), 97-108.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Fincham, F. D., Jouriles, E. N., & McDonald, 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61.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 Grych, J. H., Raynor, S. R., & Fosco, G. M. (2004). Family processes that shape the impact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649-666.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erzog, M. J., & Cooney, T. M. (2002). Parental Divorce and Perceptions of Past Interparental Conflict: Influences on the Communication of Young Adul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6(3/4), 89-11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Hughes, S. O., Power, T. G., & Francis, D. J. (1992). *Attachment, autonomy and adolescent drinking: Differentiating abstiners, experimenters*

- and heavy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Ingoldsby, E. M., Shqw, D. S., Owens, E. B., & Winslow, E. B.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parental Conflict,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vity, and Preschoolers & apos; Adjustment Problems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5), 343-356.
- Jenkins, M., & Smith, M. A.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mionous homes: maternal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182-189.
- Johnson, H. D., LaVoie, J. C., & Mahoney, M. (2000). Young Adult's Peer Conflict Tactics: Associations with Interparental Conflict, Family Cohesion, and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4), 459-474.
- Kerig, P. K.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the Division of Family Psychology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Division 43)*, 10(4), 454-473.
- Kerig, P. K. (1998). Moderators and Mediators of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 & apo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199-212.
- Kitzmann, K. M., & Cohen, R. (2003). Parents' versus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0(5), 689-702.
- Krishnakumar, A., Buehler, C., & Barber, B. K. (2003). Youth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youth problem behaviors in European-American and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0(2), 239-260.
- Larson, R. W., & Gillman. (1999). Transmission of Emotions in the Daily Interactions of Single-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21-37.
- Lee, W. (1993).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Lemper,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icitra-Kleckler, D. M., & Waas, G. A. (1993).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high-stress adolescents: The role of peers and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8, 381-402.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the Division of Family Psychology of the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Division 43)*, 15(2), 315-333.
- Markstrom, C. A., Marshall, S. K., & Tryon, S. J. (2000).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rural low-income Appalachian adolescents from two racial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3, 693-703.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y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Closky, L. A., Figueredo, A. J., & Koss, M. P. (1995). The effect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1239-1261.
- Morgan, P., Chang, J., & Pettit, R. (1994).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behavior among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 Richters, J. E., & Martinez, P. E. (1993). Violent communities, family choices, and children's chances: An algorithm for improving the odd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09-627.
- Rosenbaum, J. L. (1989). *Family dysfunction and female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35, 31-44.
- Santrock, J. W. (1996a). *Adolescence (Sixthed.)*: An introduction. Chicago.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ells, S. P. (1998). *Treating the Tough Adolescent: A Family-Based, Step-by-Step Guide*. The Guilford Press.
- Straus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urner, H. A., Kopiec, K. (2006).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131-158.
- Unger, D. G., Brown M. B., Tressell, P. A., & McLeod, L. E.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 colon; The Role of Family Functioning.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1(1), 23-41.
- Wierson, M., Forehand, R., & McCombs, A. (1988). The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 functioning to parent-reported and adolescent-perceived conflic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원 고 접 수 일 : 2006. 7.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6. 8. 2

게 재 결 정 일 : 2006. 8. 11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Jina Jang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confirmed the indicated potential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aladaptation.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we developed the two theoretical models. In the model 1, all mediating variables were assumed to have mediating effects in the same level. But in the model 2, ego-resiliency was assum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and maladaptation. We appli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the present data and found the two models were both statistically suitable. However, the model 2 showed a better fit than the model 1.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 didn't bring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maladaptation. Secondly, marit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Thirdly, ego-resilie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maladaptation. Finally, ego-resilie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aptation.

Key words : marital conflict, adolescent's maladaptation, ego-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